농어촌공사 영주·봉화지사, 하눌저수지 환경정화 활동

오공환 기자 | 승인 2026.11.17 08:08 | 호수 1085

수질환경보전회 위원 15명 참여…하반기 간담회 열어
저수지 상류·유입수로 오염원 점검, 수질보전 협력 논의





한국농어촌공사 영주·봉화지사(지사장 조정옥)가 지난 11일 봉화군 상운면 하눌리 하눌저수지 일원에서 수질환경보전회 위원들과 함께 하반기 간담회를 열고 합동 환경정화 활동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공사 내부위원 10명과 외부위원 5명 등 15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간담회에서 지역 수질보전과 환경개선을 위한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지속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어 하눌저수지 상류 유역과 수질개선지구 유입수로를 살피며 오염원을 점검했다. 특히 저수지 주변 환경과 수로 상태를 확인하고 수질오염을 유발할 수 있는 요인을 살피는 한편, 깨끗한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환경정화 활동도 펼쳤다.

조정옥 지사장은 “깨끗한 농업용수 확보와 수질보전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관심과 사전 점검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지역 수질보전과 쾌적한 농촌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오공환 기자 okh7303@hanmail.net

저작권자 © 영주시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